

# 조선대학교, 미래형 맞춤 인재 양성 '총력'



1 조선대학교 IT융합대학 2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CU INNO SPACE' 3 SW 제작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발표 및 시상식

기술 교육 공간 'CU INNO SPACE'(이노 스페이스)를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창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IT융합대학에 구축했다.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이노 스페이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크리에이션 스페이스를 비롯해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을 창작하고 체험·구현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해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듀케이션 스페이스 등 다양한 첨단기술 공간과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혁신을 통한 성과는 학생들의 수상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학생들은 '빅데이터시스템' 과목에서 익힌 역량을 바탕으로 LH가 주최하는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필로팀(Philos Team)은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 플랫폼(COMPAS)을 이용해 소방 관련 정보를 분석,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참가팀 497개 중 3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공과대학 학생들이 '첨단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EDISON) 전산열유체 SW활용대회' 전산열유체 분야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필로팀을 지도한 나인섭 교수는 "조선대학교는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우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융복합 교육과정의 값진 성과물로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⑦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호남 최초 SW중심대학 선정, 관련 학과 신설,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치매 조기진단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등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학은 IT융합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지능 IoT 전공과 임베디드보안 전공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SW 전공 정원을 증원해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학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정보보호·VR/AR·지능 IoT·빅데이터 5개의 트랙으로 된 전공 트랙 제도를 도입해 전공별 심화 교육과 산학연계 교육을 통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한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계 교육도 시행한다.

인공지능을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지난 6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SW중심대학사업 지원을 통해 조성한 첨단



#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나다 조선대학교

- 네이처 인덱스 호남 사립대 1위 (2020년)
- 사회적임지수 평가 호남 사립대학 1위 (2020년)
- 치매 조기진단 인공지능기술 개발 (2019년)
- 호남 최초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2017, 2021년)
- 양자컴퓨터 관련 양자 내성 보안기술 개발  
국책사업 선정 (2021년)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2021년)

